

강희업 대광위원장, “대전권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”

- 31일 대전시청 찾아 광역교통 협의회… 지역 광역교통망 협력방안 논의
- 부산·울산권(8.31.), 광주권(9.19.), 대구권(10.17.)에 이은 소통 행보 마쳐

-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0월 31일(화)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,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하였다.
-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대광위”)와 대도시권(수도권, 부산·울산권, 광주권, 대구권, 대전권) 지자체가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, 현안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.
-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,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대광위의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먼저 소개하고, 대전권의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,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제를 진행하였다.
 - 이어, 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도에서 시·도 광역교통 정책방향과 지역 현안과제를 설명하고, 대광위와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.
- 강 위원장은 “대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거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전권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”면서, “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광위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
- 또한, 강 위원장은 대전권을 마지막으로 부산·울산권(8.31.), 광주권(9.19.), 대구권(10.17.)에 이은 지방 대도시권 순회 방문을 마무리하며,
 - “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”가 있으므로, “「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」(’26~’30) 수립 시에는 지자체·지방연구원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2023. 10. 31.

국토교통부 대변인